

Issue Comment

2017. 6. 27

KT&G 탐방노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2Q17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달성 전망. 국내 담배 시장은 경고그림 영향 해소중. 수출담배는 수량성장+가격인상+2Q16기저효과로 +15~20% 성장 예상. 홍삼부문은 국내는 자가수요 신제품 판매 호조, 수출은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 흐름 지속. iQOS 우려는 동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기대감으로 전환중. 언론에 노출된 디자인은 오보. 제품명은 Lil, BAT의 GLO에 이어서 출시 전망

국내담배

담배 시장은 경고그림 영향에서 QoQ 회복세, 담배 시장 1Q17 -4.8%에서 2Q17 -2~3%로 축소 예상 점유율은 60~61%로 예상. 1Q17 61.2%대비 소폭 하락(4Q16 점유율 부진의 기저효과로 호조). ASP는 1Q17 수준인 827원 유지 전망. 경고그림 영향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확대, ASP 상승 효과로 국내담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1.2% 증가 전망. 하반기 경고그림 영향 해소 가속화될 전망

해외담배

2Q16은 수량, ASP 모두 낮은 베이스. 수량은 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성장세, 성장여력은 충분한 상황.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은 가격인상 효과 반영. 관세청 4~5월 누계 전년대비 32.5% 성장으로 동사의 실적 성장 뒷받침. 해외담배 매출 성장률은 +15~20%로 예상. 지역별로 중남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높은 성장세 지속될 전망.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가 큰데 에쎄 캡슐 크레텍 인기. 중동은 에쎄로 제품 전환되면서 믹스 개선 효과도 발생. 러시아도 초슬림 캡슐 담배 인기로 ASP 믹스 개선

홍삼

1Q17 흐름을 이어갈 전망. 홍삼 두 자리 수 외형 성장 지속 예상. 국내는 5월 가정의 달 판매기간 성과 좋았고, 수출은 전년도 재고조정에 따른 기저로 고성장 흐름 지속. 1Q17기준 제품별 성장률은 화애락 +130%, 에브리타임 +78%, 천녹삼 +112%, 굿베이스 +165%. 김영란법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자가수요제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특히 20~30대 수요가 증가세)

전자담배

제품 준비는 완료 출시 일정과 유통전략 고민. BAT GLO에 이은 출시 예상. 최근 언론에 보도된 디자인은 오보, 실제와 다름. 내부적인 시연/품평회 반응은 긍정적. 충전 관련한 일부 iQOS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의 형태로 예상. iQOS는 출시 초기 디바이스, HEET stick 물량 부족으로 시장 확대에 제한적인 모습. 필립모리스 일반담배의 소비자들의 전환이 많았기 때문에 M/S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예상

부동산

대구분양은 17년 매출액 1,300억원, 영업이익 156억원 반영(전체 매출액 규모는 3,439억원). 대구분양은 17년 마무리 향후 신규분양은 수원부지, 세종부지 예상. 수원은 부지가 대규모인 관계로 협의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

기타

CAPEX 가이던스 4,200억원 2,000억원은 유지보수, 2,000억원은 수원/세종 부동산 개발에 따른 투자 예상금액. 부동산 개발 지연될 경우 18년으로 이연될 전망. 배당정책은 아직 논하기 이르고 연말쯤 결정. ibk 오바행 관련해서 달라진 요인은 없으나 시장에 블록딜을 하기 보다는 기재부/복지부 관련 기관에 대한 매각도 예상